

OPINION

2025년 9월 19일 금요일

문화산책

추석엔 '케데헌'과 함께 김밥 챌린지를

백승현

대동문화 전문위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 날만 같아라'는 추석이다. 한가윗날이 좋은 이유를 따져보면 100가지도 넘게 쓸 수 있겠다. 폭염의 나날들이 지나가고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하늘은 청명하고 들녘엔 누런 풍년의 벼물결이 일렁이고 바람은 산들거리는 좋은 날.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차례상 아래 었드려 조상들을 위해 제사를 모신다. 고향 사람들과도 정담을 나누고 그리웠던 마음의 연대를 강화한다. 음식과 술도 새로 해 나눠 먹으며 즐긴다. 여러 가지 놀이로 흥겹게 지낸다.

백 가지 곡식과 채소와 과일이 새로 익고, 수확이 넘실대니 모든 일이 다 풍성하다. 추석 음식으로 약밥, 송편, 잡채, 전, 토란국, 소고기국, 삼색나물, 조기구이, 갈비찜에 약밥이 밥상에 오른다.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다. 식혜, 유과로 입가심하고, 사과 배 등의 제철 과일을 곁들이면 마음까지 든든해진다.

추석은 민족의 공동 축제다. 추석 즈음엔 차례상만 큼이나 놀이와 음식으로 흥겨운 남도 축제가 열린다. 광주 디자인비엔날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와 같은 예술 축제는 추석 연휴 때 즐길 수 있다.

추석 이후엔 광주 추어의 총장축제, 광주김치축제가 열린다. 전남에서는 남도 국제음식산업박람회, 화순 고인돌 가을꽃 축제,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 장성 황룡강 가을꽃 축제, 곡성 심청 어린이 축제, 여수 밤바다 불꽃 축제, 해남 미남(味南) 축제 등이 줄을 잇는다.

음식문화를 중심 콘텐츠로 한 가을 축제가 압도적으로 많다. K푸드 시대 대표적인 '미식의 고장' 광주 전남의

'맛 축제'들의 가능성이 선 보인다. 다른 축제에서도 먹거리를 만들고 즐기는 프로그램이 김밥 받처럼 활짝 벌어졌으니, 남도 음식은 우리 몸과 마음을 풍성하게 해주는 콘텐츠로 으뜸이 아닐 수 없다.

며칠 전 '남도 국제미식산업박람회'에서 '김밥 페스티벌'의 감동을 받은 후배에게 연락이 와서 김밥 쿠킹 클래스, 김밥 시식 판매, 김밥 아트와 친환경 피크닉 공간을 연출하는 데 참여할 외국인 단체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한다.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남 목포에서 열리는 축제다.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는 'K-푸드의 원류, 전남'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축제다. 이 다채롭고 맛갈스러운 축제 프로그램 중 하나가 '세계 김밥 페스티벌'이라는 것이다.

김밥은 K-푸드 세계화의 상징이다. 편리함과 맛, 그리고 건강이라는 이미지로 서구권의 식문화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다. 이어 대담 후배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을 보면 한식과 전통문화, K-팝이 녹아든 K-컬처의 가능성을 조금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문화 콘대'가 되지 않기 위해 미국의 '인터넷 영화사'에 거금(?)을 결제하고 이 에니메이션 뮤지컬 판타지 영화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지 않아도 어떤 국회의원이 전통문화와 대중문화가 융합된 콘텐츠를 '전통융합 콘텐츠'로 규정하고 창작, 유통, 해외 진출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케데헌법'을 '콘텐츠 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 안에 포함시키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었다.

한국의 무속신앙, 퇴마 등 전통적인 요소를 결합했다. 그래서 독특한 한국문화 요소가 깃들여 있다. 여기에 K-POP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주요 동력이 되고 있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었다. 선비 복색, 오방색 색감, 전통문양, 전통건축, 호랑이와 까치 등 상징하는 '호작도' 민화, 전통 매듭과 노리개 등의 전통문화적 요소의 융복합이 특색이다. 전 세계적인 플랫폼을 통해 동시 공개되면서 연

관 산업의 동반 상승 곡선을 그려냈다. 재미도 감각도 내용도 철학도 한국적인 재미있는 영화였다.

극중의 루미와 동료 멤버들은 한국 음식을 먹는데, 루미가 김밥 한 줄을 통째로 들고 먹는 장면이 해외 팬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김밥 챌린지'로 이어졌다고 한다. 이 밖에도 컵라면, 설렁탕, 떡볶이, 어묵 등 한국의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음식들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김의 본고장은 전남이다. 광양은 김 시배지이고 김의 생산량은 전남이 압도적인 우위다. 김밥, 김치찌개 등에서 활용되어 한국인의 식탁에서 빠질 수 없다. 간편하고 건강한 먹거리로, 간식이나 대용식이 아니라 영양 만점의 정식이다.

호남을 상징하는 음식으로 남도 한정식, 흥어 삼합, 떡갈비, 꼬막, 낙지, 남도 김치, 무등산 보리밥, 오리탕, 육전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은 '미향 남도'의 대표주자들이다.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이 된 주먹밥도 광주를 대표하는 특별한 음식이다. 맛과 스토리가 담겨 있다.

전통 음식을 현지인의 입맛에 맞게 재해석하고, 세계인이 선호하는 식재료나 조리법을 접목해 푸드-테크를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 음식의 스토리를 담은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등을 K-컬처와 연계한다. 남도 음식의 매력적인 콘텐츠를 확산시켜 세계화하고 음식 테마 여행 코스를 개발해 세계인들이 음식문화 성지에 찾아오도록 하고, 축제로 체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 수출 확대와 품질 관리로 신뢰를 구축하는 브랜드 전략도 필요하다.

이번 추석 연휴엔 미향 남도의 재미를 갖춘 음식으로 제사를 지내고 문화적 연대의 성찬을 함께 해야겠다. 김밥으로 상징되는 K-컬처의 세계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케데헌'을 감상하면서 이야기해야 하겠다. 추석 연휴가 길다고, 민생지원금이 더 지원된다고 해서 마음이 더 흥감스럽다. 민생이 힘들고 내린 정국에 내상을 입었던 마음에 새살이 돋는 것 같다.

기고

예술지원사업, 디지털 시대 맞는 변화 필요하다

황형철

시인



지난해 11월 광주연구원이 공개한 '광주광역시 도서관·독서 현황'을 보면 광주시민은 1인당 평균 6.4권의 책을 읽고, 전국 평균 7.2권에는 못 미친다. 며칠 전 대한출판문화협회가 발표한 '2024 독서문화 통계'를 보면 성인 1인당 종이책 5.4권, 전자책 1.4권을 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통계를 다해도 우리 국민의 독서량은 매우 낮다는 걸 알 수 있다.

낮은 문해력 때문에 웃지 못할 말도 들린다. 중식(中食)을 중국 음식으로, 사흘은 4일로, 금일(今日)은 금요일로 오해해 착오가 생기기도 한다. 입시제도 속에서 독서나 토론 교육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스마트폰에 밀려 독서량이 현저히 적은 데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2025 교육지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학을 졸업한 25~64세 우리나라 성인의 문해력은 조사 대상 30개국 중 네 번째로 낮다. 독서가 취미가 아닌 생활 이기를 버리는 건 안감생심이다.

그나마 다행인 점도 있다. 일부이긴 하나 10~20세대에 게 독서가 '힙'한 문화라는 것이다.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

루언서가 소셜 미디어에 올린 책을 사고, 북카페를 방문하거나 굿즈를 수집한다. 책은 혼자 읽는 데 그치지 않고 재미있게, 예쁘게 공유와 인증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며 '경험'하는 수단이 된 지 오래다. 책을 읽는 행위가 멋지다는 뜻의 텍스트힙(Text Hip)이라는 신조어도 생겼다.

일부 출판사는 이런 변화를 빠르게 대처했다. 북클럽이 그것이다. 여기에 가입하면 구매 혜택을 기본이고, 책과 선물이 담긴 '웰컴키트'를 보내준다. 회원만 소장할 수 있는 에디션이나 킷, 스티커 등 탐나는 굿즈를 제공한다. 작가 강연에 우선 초대하고, 커뮤니티에서 자유롭게 소통한다. 출간 전 먼저 읽어볼 수 있는 서평단이나, 표지 선정 투표를 진행하는 등 책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출판사 물류 창고를 개방하는 이벤트를 열기도 하니 '오픈런'이 있다고 해도 놀랄 것이 아니다. 디지털 환경에 친숙한 독자들을 흡입하여 충성도 높은 마니아층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런 출판사는 작가에게 문턱이 너무 높다.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지역 예술을 육성하는 광주 문화재단, 전남남도문화재단 같은 기관에서는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에 변화가 요구된다. 현재 방식은 발간이나 전시, 공연 비용을 대주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가는 힘겹게 쓴 작품을 출판할 뿐 딱 할 수 있는 게 없다. 주변

사람에게 공짜로 나눠주며 축하 인사를 받고 나머지는 집에 쌓아두기 일쑤다.

단순히 비용을 주고 정산서를 내면 끝나는 지원으로 안 된다. 부가적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접두어 있는 지역의 시장을 깨워야 한다. 미술인이나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굿즈 상품을 제작하거나, 독자와의 대화, 유튜브 채널 등 온오프라인 소통도 해볼 만하다. 굳이 별도로 하지 않더라도 지역 곳곳에서 열리는 문화예술행사에 포함할 수 있는 여지도 얼마든지 있다. 다양한 분야의 창작물을 지역 민이 부담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쿠폰 발행이나 마일리지, 회원제 같은 방법도 있다. 북클럽 사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 얼마든지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독자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면 작가는 창작에 더욱 매진하는 계기가 되고, 동네 서점 같은 곳은 커뮤니티의 거점이 되어 경영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이다. 다양한 장르와 세대, 계층으로 확산하면 창작 활성화는 물론 지역민의 예술 향유 방법 또한 풍성해질 것이다. 지역 예술을 육성하는 기관의 목적도 당연히 여기에 있지 않나. 지원 사업의 결과물을 어떻게 알리고 소비시키며 지역민이 누리도록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받아들여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디지털 시대에 맞게 적극적이고 획기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취재수첩

주민 눈높이와 상식

이산하

지역사회부 차장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사·의결하는 지방의회, 지방의회에 소속된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감시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있다. 바로 '주민'과 '상식'이다.

의원들은 집행부 직원에게 질의를 할 때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올바른 일인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옳은 행정인가'란 질문을 자주 던진다.

특히 예산의 집행과정을 살펴보고, 심사를 할 땐 두 말할 필요 없이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다.

최근 북구의회에서 이런 상식이 무너진 일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정액으로 지급 받은 출장비 4400여만원은 은누리상품권을 구매, 여행사 대금으로 결제한 뒤 할인받은 10% 차액을 즉시 반납하지 않아서다. 할인으로 인한 차액은 2개월이 지난 뒤에야 반납했다. 이들은 할인 차액이 공적 예산에서 발생한 이익임에도 이를 기부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를 적법하게 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해 반납이 늦어졌다고 한다.

일선 공무원들은 입을 모은다. 상식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기부할 수 있는가. 할인 차액은 당연히 반납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고.

일각에서는 국비가 구비로 둔갑했다는 말까지 나온다. 은누리상품권 인센티브가 구비로 반납됐기 때문

이다. 가만히 있었는데 국적이 늘어나는 '창조경제'를 실현했다는 비아냥도 있다.

반납금은 다음 추경 때 반납돼 불용처리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은누리상품권 취지에 벗어난 것은 분명하다. 소상공인, 골목상권 활성화에 맞춰진 은누리상품권이 소액이지만 지방의회 예산만 불어나게 해준다. 의원들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어 경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 상식 선을 벗어난 것은 자명하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시민들은 의원들을 지칭하며 '우리의 세금을 이렇게 쓴 만큼 손가락질 받아 마땅하다'고 한다.

최근에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산불 성금을 업무추진비로 활용해 반납을 하고 있다.

북구의회에서도 은누리상품권과 관련한 사안을 죄의 유무를 떠나 도덕적 관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사설

'광주극장'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돼야

호남 최초 극장인 '광주극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 동구가 제출한 관련 신청서와 자료가 광주시 문화유산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된 것이다.

광주시 문화유산위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유산청에 지정을 요청한다. 국가유산청은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지정을 결정한다고 한다. 지정되면 시설 보존·관리를 위한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여기서 국가등록문화유산은 한마디로 근현대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높아 국가가 보존·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재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1935년 10월 한국인에 의해 개관한 광주극장은 그런 가치가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먼저 영화를 상영 중인 현존하는 두번째 오래된 극장이지만 1895년 개관한 인천 애관극장이 5관 멀티 플렉스로 운영되고 있는 것과 달리 개관 당시부터 지금까지 단관 상영중인 최장수 단관극장으로 원형이 그대로 유지돼 건축사·문화사적 가치가 높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에서 주인공 금영이가 때때로 아브라이트를 하는 칸느극장이 바로 여기이고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 '살인자의 기억법', '극비수사', '피끓는 청춘' 등의 촬영도 이곳에서 이뤄졌을 정도다.

또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 검열속에서도 우리나라 창극단이나 판소리 등을 극화한 공연을 주로 상영하는 등 신문화운동과 항일정신을 이어왔고 해방 후에는 김구선생 강연회나 음악회, 연극제를 여는 등 문화교육 운동의 장소로 활용돼 오는 등 역사적 가치 또한 높다.

여기에 지금까지 수많은 상영중단 위기속에서도 이를 극복해 온 점도 보존 가치가 충분하다.

실제 2000년대 멀티플렉스 등장으로 인한 경영난이 극심했지만 2002년부터 예술영화지원사업 지원금으로 근근히 버텼고 2015년부터는 이마저도 끊겼지만 지역 예술인 등의 도움으로 명맥을 유지했다. 2023년에는 광주 동구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으로 선정돼 기존 2K 영사기와 스크린을 최신식 4K로 교체하며 활력을 찾고 있는 중이다. 90년 넘게 광주, 아니 호남지역의 영화·예술·공연이 펼쳐진 광주극장의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이 절실하다는 얘기다.

광주 청년 수도권 러시 심각...대책 절실

광주시민의 수도권 러시현상이 심각하다. 지난 20년동안 12만5000여 명이 '수도권행'을 택한 것이다. 연간 6250명이나 된다.

특히 이들 중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청년층이 80%가 넘는데다 매년 순유출이 지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 이동'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 간 광주에서는 12만5326명이 서울·경기·인천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역시 중 부산(23만7034명), 대구(19만1916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수치로 전체 인구수가 비슷한 대전(8만1537명)과도 큰 차이가 난다.

인구 등을 고려해 볼때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비율적으로 높다.

실제로 광주에서는 매년 빠짐없이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됐다. 관련 통계 집계에서 광주가 포함된 1986년까지 거슬러 올라가봐도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된 사례는 거의 없을 정도다. 순유입은 한 지역에 들어오는 인원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많을 때를, 순유출은 적을 때를 의미한다.

청년층의 유출은 심각하다 못해 위험수준이다. 이 기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층은 10만4608명으로 전체 유출 인구의 83.4%에 달할 정도다.

40~64세 중장년층은 7221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인구 순유출만 있는 청년층과 달리 중장년층에서는 수도권 인구가 순유입된 사례도 있다.

2010년~2016년까지 2239명이 순유입됐다 2017~2021년까지는 순유출이 더 많았고 다시 2022년 32명, 2023년 73명이 플러스됐다.

전남도 이 기간 청년층 수도권 순유출이 12만8347명이나 돼 청년층의 수도권 러시현상은 광주만의 일이 아니다.

이는 청년들이 결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함에 따른 것이다. 이번 통계에서도 수도권으로 이동한 주요 이유로 취업·전직·이직·근거리 이동 등 직업 사유를 가장 많이 꼽았다고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청년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부 370-7222 임 원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최근에는 광주시의회에서도 산불 성금을 업무추진비로 활용해 반납을 하고 있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